

주요내용

▶ UAE, 고병원성 인플루엔자(AI) 감염방지를 위한 수입금지 조치 취해

- UAE는 조류독감의 확산 우려로 미국과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의 열처리 되지 않은 가금류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. 환경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경고에 따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.
- 동물보건개발부 장관인 Sultan Al Qasimi 장관은 이번 조치가 세계동물보건기구 측의 미국 테네시주와 말레이시아 켈란탄주의 상업용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것임이라고 밝혔다.
- Al Qasimi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식품안전 수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며, 이는 식품, 사료를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식품의 안전에 관한 법에 따른 것이며 해당국가를 방문 및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적용된다고 언급했다.

▶ 식품안전 보장을 위한 UAE 당국의 노력

- UAE 식품안전국은 지역 식품당국과 협력하여 식품안전 절차 및 작업을 표준화하고 감독할 책임을 가지는 부서이며, 식품안전 보장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무역 활동의 관리, 규제를 위한 정책 및 법안을 개발하는 일도 관장하고 있다.
- UAE는 통관시 제반서류(원산지증명서, 위생증명서 및 할 증명서와 같은 기타 필수 증명서)들은 엄격히 확인하고 있으며, 제품 식별카드를 검사하여 UAE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식품표본검사를 진행하고 있다.

* 자료 : The National UAE 「UAE bans certain poultry products from US and Malaysian states,」 (2017.3.30자)

시사점

- 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UAE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식품을 수입하고 있다. 그러나 육류의 경우 할랄인증 등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는 수출의 문턱이 높은 시장이다.
- 특히 할랄인증 기준이 국가별, 지역별, 나아가 할랄인증제도별로 차이가 있으며 까다로운 만큼 상품단가도 올라가 경쟁국 상품과의 가격경쟁력 면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다. 따라서 국내 육류의 UAE 정식 수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.